



안녕하세요? 이안나 수녀입니다. 어릴 적에 애교가 많고 춤을 잘 쳤다고 합니다. 엄마 말씀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흥이 가라앉을 때까지 춤을 추고 나서야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한번은 애가 안 보여 어디 갔다 했더니 제가 약장사를 따라다니며 춤을 추고 있더랍니다. 별명은 구관조. 흥내를 잘 내고 재미나게

말을 잘한다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입회하기 전 유치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언가 집중하며 콧등에 땀방울이 맺혀있는 것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집니다. 1995년 입회! 나중에 제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수녀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반 아이들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냐고 수녀원 가길 잘했지”라고 했다고 하면서, 친구들이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자고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사랑을 많이 받은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2004년 종신서원을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도직을 하였습니다. 충주 성모학교 유치부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애들아, 가자”하며 앞장서 가는데 “선생님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인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두고 나만 혼자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차,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의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야? 아 양~” 간식을 먹다가



싫어하는 야채를 그 자리에 뱉어버리는 아이들을 위해 요리 실습도 하고 텃밭에 채소도 심었습니다. 즐거워진 간식 시간 해맑은 웃음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논산 씨튼 영성의 집에서 소임을 하고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랫소리, “수녀님” 하고 뛰어와 안기는 것 등이 가끔 그립습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시편 17, 7) 그분께 말기며 오늘도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Hello, I'm Sister Lee Anna. My mom used to say that when I was a little child, I enjoyed dancing and never left any place where music played until I was exhausted of dancing. It is said that I danced well and that I had lots of charm. One time, I was missing, and my mom was looking for me and found me - dancing, following the man playing music and selling medicines in the street. My nickname is mynah bird because I am good at mimicking things and speaking well.

Before entering the community, I worked as a kindergarten teacher. Whenever I see the children do something focused with their little hands, the bridge of their nose covered with sweat, or I listen to their singing, I cannot help smiling and being happy with their lovely presence.



I entered our community in 1995 and was told later that one of the children said, "I knew it. How could she live in this harsh world when she is so kind and good?" And they promised not to make trouble and listen well to teachers' words. I am a delighted person who received so much love from little children. In 2004 I professed perpetual vows and worked at a 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Working at the Chungju St. Mary Daycare Center for the Blind, one day, I was walking ahead of a class of students, leading them. Suddenly, I heard my students shouting, "Sister, where are you?" What is this? I was walking ahead, leaving my blind students behind all by themselves. Oops, since then, I always tried to stick to them. "What is this? Whoops~~~" For the kids who spit out vegetables that they do not like, I learned to cook and plant various vegetables in our garden. From their innocent laughter, I learned how to love.



I work at Nonsan retreat house now, and sometimes I miss their laughter, singing, and hugs when rushing up and calling out "Sister." "Stay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for the Lord" (Psalm 17.7). Putting everything into God's care, I want to live happily and joyfully today and every day.

